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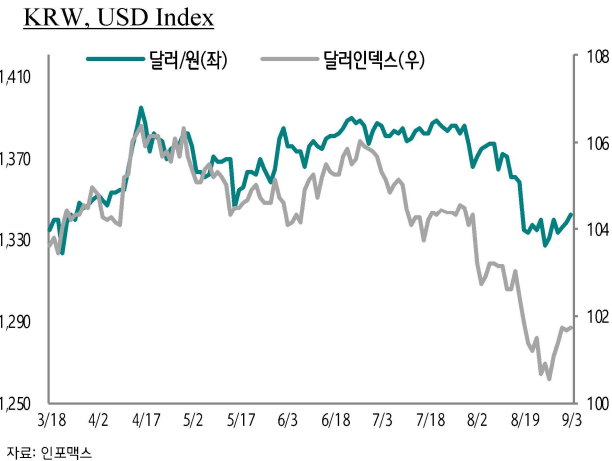
9월4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37~1347원
NDF 증가 : 1338.75 (Swap point : -2.65, 1341.40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/원 환율은 미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할 전망이다. 미 8월 ISM 제조업 PMI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. 특히, 신규주문이 급감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등 위축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재확산. 이에 위험회피 심리가 유입됨에 따라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. 다만, 수급상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가능성과 미 구인건수 등 연이은 고용 관련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타날 관망세는 상단을 제한할 요인. 이에 환율은 상승 압력 속 134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
- (전일 동향) 3일 달러/원 환율은 미국장 휴장으로 달러 움직임 제한된 가운데 0.4원 하락한 1338.0원 출발. 양방향 수급 속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3.0원 상승한 1341.4원에 증가 기록(15:30). 미 제조업 지표 부진 소식에 달러의 지지력 나타나면서 3.0원 오른 1341.4원에 마감
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	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재점화 리스크오프 분위기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미 고용 데이터 발표 전 관망심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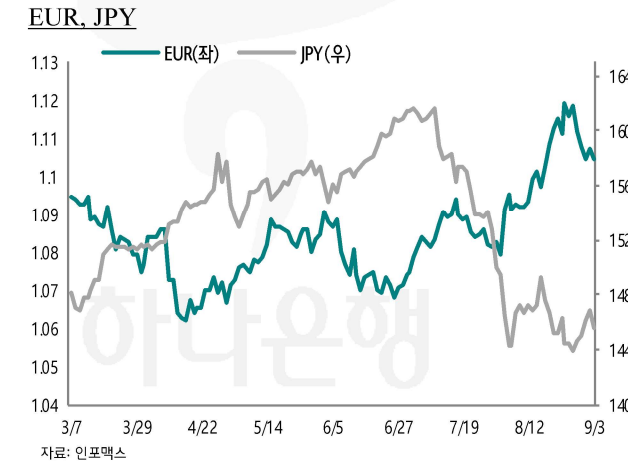
[Global Market]

EUR/USD 예상 : 1.0993~1.1073
USD/JPY 예상 : 144.89~145.79

- (USD Index)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제조업 활동이 5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밑돌았다는 소식에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속 위험회피 심리가 나타남. 이에 달러인덱스는 0.10 상승한 101.75를 기록
- (EUR) 유로화는 예상을 하회한 미 제조업 PMI 데이터에 시장 내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유로/달러 환율은 0.0028달러 하락한 1.1043 달러로 마감
- (JPY) 엔화는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금리인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발언에 강세를 보임. 달러/엔 환율은 1.43엔 하락한 145.49엔으로 마감

글로벌 통화 동향
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101.752 (+0.10)	
EUR/USD	1.1043 (-0.0028)	1481.31 (-0.45)
USD/JPY	145.49 (-1.43)	922.04 (+11.13)
USD/CNH	7.1205 (+0.0071)	188.37 (+0.2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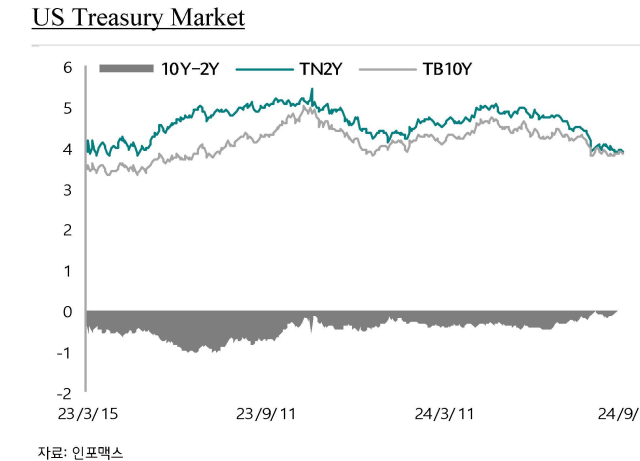
[Macro Analysis]
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-3.40bp (전일대비 -1.80)

- 글로벌 경제는 미 제조업 경기 부진에 향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는 모습. 미 8월 ISM 제조업 PMI는 전월비 0.4p 상승한 47.2를 기록하며 예상치 47.5를 하회. 하위지수 중 재고지수가 50.3으로 이전 대비 5.8p 급등. 고용지수는 전월의 43.3에서 46.0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축 국면이 지속. 신규수주지수는 44.6, 생산지수는 44.8로 각각 이전 47.4, 45.9에서 둔화. 미 8월 S&P글로벌 제조업 PMI는 47.9를 기록하며 전망치 48.0 및 이전치 49.6을 하회. 미국채 수익률은 예상을 밑돈 제조업 지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2년물 5.80bp 하락한 3.867%, 10년물 7.80bp 하락한 3.833%를 기록. 뉴욕증시는 기술주 급락에 다우지수 -1.51%, S&P -2.12%, 나스닥 -3.26% 마감. 국제유가는 OPEC+ 중산 계획과 미, 중 제조업 경기 위축 속 수요 약화 전망에 급락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

시간	내용	예상	이전
10:45	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	51.9	52.1
22:45	캐나다 기준금리 결정	4.25%	4.50%
23:00	미국 7월 JOLTs 구인건수	8,090M	8,184M
03:00	연준 베이지북		



미 제조업 경기 위축세 지속, 리스크오프와 환율 상승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